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월남인민의 혁명전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신 불멸의 령도

배 순 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의 자주화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중에는 싸우는 월남인민의 혁명전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시여 미제를 몰아내고 월남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신 불멸의 령도업적도 깃들어있다.

1964년 미제는 남부월남에서 《특수전쟁》의 전략이 실패를 당하자 현지고용병들에 의한 《특수전쟁》단계로부터 미제침략군의 대량적인 투입에 의한 새로운 《국부전쟁》단계에로 이행하였다. 미제는 남부월남에 신행무기들과 추종국가군대들을 대량 투입하는 한편 북부월남에까지 전쟁을 확대할것이라는것을 공공연히 떠들어대던 끝에 8월에는 월남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사건을 일으키고 전쟁으로 확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월남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승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시고 주체55(1966)년 10월 19일 조선인민군 제203부대 군인들과 하신 담화《월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승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된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과 회의들에서 월남인민의 혁명전쟁을 지지성원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월남인민과 생사운명을 같이 할것을 결의하고 있는 우리 조선인민은 월남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의 정의의 투쟁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할것입니다.》(《김일성전집》 제35권 387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월남인민의 혁명전쟁을 지지성원할데 대한 방침은 월남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미제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도록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월남인민의 혁명전쟁을 지지성원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월남인민의 혁명전쟁을 지지성원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밝히도록 하시고 몸소 전쟁이 한창인 월남에 가시여 싸우는 월남인민들을 고무해주시였다.

미제는 1964년 8월 4일 미리 짜놓은 침략계획에 따라 월남의 령해인 바크보만에 수십대의 비행기와 구축함을 침입시켜 북부월남의 연해지역에 함포사격과 기관총사격을 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월남인민군이 호된 타격을 가하자 미제는 파렴치하게도 흑백을 뒤집어 북부월남이 공해상에 있는 저들의 함선에 공격을 하였다고 사실을 오도하면서 8월 5일 북부월남에 대한 폭격을 가하는 한편 유엔안보리사회에 제소하는 바크보만사건을 조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크보만사건이 일어나는 즉시로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하도록 하

시였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주체53(1964)년 8월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제가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흉계를 꾸며왔으며 실천으로 옮기고있다는것을 구체적으로 까밝히면서 미제의 침략행위를 규탄하여 발표된 월남정부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리고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수호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월남인민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전투적연대성을 표시하였다.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의 날강도적인 도발행위를 폭로규탄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싸우는 월남인민에 대한 국제적지지성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보다 힘있게 벌려나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53(1964)년 10월 당면한 대외사업방향을 제시하시면서 남부월남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신데 이어 그해 11월에는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정치군사정세가 첨예한 월남을 방문하여 호志明주석과 회담을 하시고 싸우는 월남인민을 크게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반동회의 1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였을 때에도 그 나라에 온 월남의 지도간부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만나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고 국제적범위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성원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토론해주시였으며 있는 힘을 다하여 돕겠다는 우리 당과 공화국의 립장을 거듭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54(1965)년 5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에서 의정 첫째 문제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월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데 대하여》를 토의하도록 하시고 월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으며 련이어 월남인민회의와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에 련대성편지를 보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55(1966)년 10월 조선로동당 제2차 대표자회에서 반제반미투쟁의 원칙적인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서 월남인민의 반미항전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주체55(1966)년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은 전국도처에서 군중대회, 종업원집회 등 각종 행사를 조직하고 정의의 반미항전에 떨쳐나선 월남인민들을 적극 지지성원하였으며 그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는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주체56(1967)년 3월 6일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전쟁확대행위를 반대하고 월남인민의 반미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진행되였으며 3월 13~19일까지를 월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주간으로 설정하고 싸우는 월남인민들에게 전투적인 련대성을 보냈다. 그리하여 월남인민의 혁명전쟁을 지지성원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월남에 공군지원병을 보내시여 월남인민의 혁명전쟁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시였다.

전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자 미제는 남부월남에 저들의 침략무력과 남조선피뢰군 및 추종국가군대를 수많은 끌어들이였다. 특히 미제는 공중우세를 자랑하면서 월남의 도시와 마을들을 마구 폭격하였다.

당시 월남은 고사화력은 어느 정도 강하다고 할수 있었지만 공군무력은 약하였으므로 적비행기들의 폭격을 막아낼수 없어 애를 먹고있었다.

그리하여 월남정부에서는 그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비행사들을 보내줄것을 정식으로 제기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체55(1966)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여시고 싸우는 월남에 즉시 강력한 공군부대를 파견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55(1966)년 10월 어느날 월남에 파견되는 공군부대장병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는 국제주의적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 어느 나라보다 먼저 전투부대를 월남에 보내려고 한다고, 희생도 있을수 있고 여러가지 곤난도 있을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곤난은 국제주의자로서의 영예를 간직하고 극복하여야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원쑤를 격멸소탕하여야 한다는 사상으로 이겨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월남에 가서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 적들과 맞설데 대한 문제와 적들의 전술적기도에 주동적인 전법으로 대처하여 싸울데 대한 문제, 식생활조직과 휴식문제, 병치료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비행사들은 주체55(1966)년 11월부터 주체58(1969)년 2월까지 영웅적월남인민의 편에 서서 국제주의적의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미제는 남부월남에 속도가 빠르고 무장장비도 좋으며 기술상태를 놓고보아도 최신형이라고 하는 비행기들을 수많이 끌어다놓고 저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뽐내면서 날뛰고있었다. 반면에 우리 비행사들이 타던 비행기는 월남공군이 리용하던 비행기였는데 속도가 적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뜨고 무장장비도 뒤떨어진것이였다. 그렇지만 우리의 비행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대담하고 명활한 전술로 공중전마다에서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으며 미제의 최신식전투기들을 맞다드는 족족 격추, 격상시켰다.

우리 비행사들은 주체56(1967)년 5월 20일 단 하루동안에만도 미제침략군 비행기를 10여대나 격추하는 자랑찬 전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 월남전선에서 미제침략군 비행사들은 우리 비행사들이 탄 비행기가 나타나기만 하면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도망치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월남전선에서 우리 비행사들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그들에게 축하문도 보내주시고 여러가지 식료품들도 보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 우리의 비행사들은 비록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었지만 언제나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렬한 국제주의적의리심을 심장으로 느끼며 미제공중비적들과의 격전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워나갔다.

치명상을 입은 우리의 한 영웅비행사는 생의 마지막시각에 자기의 몸을 평양쪽으로 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월남전선에 가있는 우리 비행사들이 적과 싸우다 희생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실 때에는 그들이 생각나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남부월남을 포함한 월남의 당 및 국가대표단을 만나시어 그들을 고무해주시고 국제무대에서 월남인민의 혁명전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시는 한편 월남인민들에게 온갖 형태의 원조를 주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 온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대표단을 만나주시고 호지명

주석은 최전선에서 싸우는 지도자이며 유능한 국제활동가라고 하시면서 남부월남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해주시었다.

세계적판도에서 월남지지원대성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데서 주체55(1966)년 7월에 열린 헬싱키평화대회연단을 잘 리용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대표단이 미제가 내놓은 《무조건협상》의 기만성을 철저히 폭로하도록 하시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표단은 대회에서 월남문제해결의 정당한 방도를 명확히 제시한 월남정부의 4개 항목요구와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의 5개 항목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무조건협상》, 《평화적협상》을 운운하는 미제를 단죄하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이 침략전쟁을 즉시 중지하고 모든 침략무력과 살인장비들을 걷어가지고 남부월남에서 지체없이 물러갈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월남인민을 모든 면에서 도와주기 위한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주체56(1967)년 8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월남민주공화국의 정부경제대표단과 회담을 통하여 월남에 여러가지 형태의 원조를 주도록 하시었다.

이에 따라 월남민주공화국의 정부경제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결과 8월 6일 우리 나라 정부가 월남민주공화국정부에 군사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할데 대한 협정들과 경제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할데 관한 협정, 주체57(1968)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계획서가 조인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어려운 시기지만 많은 무기와 군복을 생산하여 월남에 보내주도록 하시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 무기와 군복을 지원한다는것은 수월한 문제가 아니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전쟁도발책동이 계속되는 속에서 사회주의건설도 하고 국방건설도 해야 하는 아름다운 과제가 제기되였고 게다가 주체56(1967)년에는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곳에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큰물이 들이닥쳐 커다란 피해를 입어 그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못되였다.

이런 조건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사정을 뒤로 미루시고 100만벌의 군복과 함께 10만정의 각종 무기와 탄약을 보내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시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를 지니시고 월남인민의 혁명전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월남혁명전쟁의 승리와 전후 새 사회건설,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의와 진보를 위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신데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인류의 자주화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